2021년 사역보고

**아버지의 심정을 배운 한 해**

**말씀: 고린도전서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2년여의 코로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산타 크루즈 2부 사역에서 여러 영적인 측면을 교정하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 2부는 몇년간 눈에 보이는 사역 측면에서 부흥의 기쁨과 낙망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수양회와 주일 예배가 30명 이상을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욋적 성장과 더불어 그만큼 영적 성숙이 비례되지 않을 때, 밀물처럼 왔던 하나님의 양 무리들은 썰물처럼 떠났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수양회에 참석했던 그들의 내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혹은 교회에서 그저 골목대장 역활이나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문제나 일으키고, 교회와 영적 지도자 탓을 하다가 떠나 갔습니다.

이는 제게 다시금 수를 떠나서 한, 두 사람이라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집중하게 하는 방향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영적 두란노 말씀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저는 이런 방향을 믿음의 인내로 섬기지 못하고 쉽게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이고 제가 주는 영적 방향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주 화를 잘 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난 사역을 돌아보는 저의 큰 회개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7,8월 경부터 제 자신의 영적 미성숙이 근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주일 메세지 준비에 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주말에 준비하던 주일 멧세지를 주초에 묵상을 끝내고 주중에 메세지를 마무리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메세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자연히 메세지 내용이 다양하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욋적, 냇적인 교회의 변화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대한 냇적 확신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한 영혼을 오래 인내하고 낮아져 섬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개인적으로 깊이 배운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획기적인 엄청난 역사는 아니지만 작지만 매우 귀한 감사제목들입니다.

1.크리스토발 목자는 룻 동역자가 돕다가 뒤쳐져 있던 히메나 자매를 도우며 이 자매님이 본인이 일대일을 하면서 회복이 되어감을 체험하면서 일대일 성경 선생으로서 자신감을 내심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2.밀카 목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쎈타에서 일하며 거기서 갖가지 종류의 가정 폭력으로 고통하는 청소년들의 실제 삶과 문제들을 목도하며 목자의 심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한 영혼을 말씀을 섬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내면이 목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고, 또한 심리학을 추가가 공부하는 중에도 저희 가정의 동역자로 전체 사역을 보는 영적인 눈을 길러가며 성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3.요셉 형제는 그를 인도한 루이스 형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몇년간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며,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전전하면서 생긴 선입감과 배운 여러가지 것들로 말씀을 순순히 배우기 어려웠는데, 이를 잘 극복해나가며, 충성스러이 예배 환경을 섬기며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목자의 내면으로 준비되어가는 중입니다.

4.학사회 형제 자매님들은 몇년간 교회의 중심으로 꾸준히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성장해 왔고, 그 중 올해 블랑카 자매는 암 수술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통해 은혜를 끼쳤고, 그의 남편인 라미로 형제, 그리고 마르틴 형제, 후안 형제들이 꾸준히 그룹 말씀 공부와 소감모임에 참석하며 주인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 교회들로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5.누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은 지난 해에 이어 계속되는 누가복음 말씀 역사, 카니발 기간 동안의 수양회 말씀 역사, 1명의 믿음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라 양성, 10명의 성경 선생 양성, 20팀 주중 일대일 역사, 30명 주일 예배 참석입니다.